

感傷紀行 2

金 錫 澈 / 건축연구소 아키반

● 건축은 예술이나 공학이나 사회학적 체험이 아닌 도시에서의 인간집합이 갖는 본래적 언어인 것……

필라델피아('83. 1. 19)

워싱턴에서 인터스테이드 하이웨이를 북상하여 필라델피아로 왔다. 인디펜던스파크와 여러 유적들을 보았다. 생각보다 스케일이 작았으나 하나 하나의 장소들이 미국 독립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이고 주위가 200년 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새로 선 건물들은 이 장소들을 의식하고 지어져 비교적 기념적 장소로서의 구색을 갖고 있다. 인디펜던스홀은 그림에서 많이 보던 독립선언 당시의 광경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의자며 책들이며 펜들까지 당시 그대로의 상태로 있고 중앙홀 건너의 의회도 본래인 13주 대표석은 물론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복원되어 있다.

일층은 우측이 독립선언 당시의 홀 좌측이 펜실바니아 의회다. 이층은 집무실과 식당인데 당시의 식탁보와 테이블웨어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것은 독립 당시의 그들의 집단 목적이었던 자유에의 신념을 일상 속에 역사 속에 사회 속에 환기케하는 중요한 장소적 확인일 것이다. 자유의 종은 기울골라의 새 설계에 의해 유행첨단적으로 지어 있다.

이 작가는 세련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나 좀 기교적이고 약간은 현학적인 사람인데 역시 이 작품 그러하였다. 역사적 유물을 위한 장소로서의 품격이나 분위기보다 건축적 맥락의 유희에 더 편향되어 있다.

인디펜던스홀의 광장측 건너편의 그의 고층 오피스도 패턴지향적인 디자인이 주위의 느낌에 배기의 역할을 하는 듯하였다. 오래된 건물의 가로적 연속성을 유지케 하는 화사드의 잔해를 그대로 두고 옆길 같은 형식으로 전면을 처리한 점이나 옆 건물보다 더 높이 서게 되므로 북측 가로에서의 입면을 전경형식으로 처리한 점이나 입구측에서 7층까지를 띄

워 저층부의 보존 건물을 위호하고 이 건물과 그 사이의 가로적 콩코스를 자연스럽게 성취하며 상층부의 지붕 부분에서의 저층부적 해결 등의 의표를 찌르는 해학의 맛이 있으나 이것들이 다 모인 것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적 세련에 머물러 있다.

자유의 종의 집도 그러하였듯이 과감한 사선의 도입, 신선한 부분공간의 처리, 설정의 신기함 등이 건축적 쾌감을 주고 있으나 감동적이기 보다는 감탄적이다.

인간의 격식과 도시형식 등과는 빗기어 가는 자존의 해학측에 더 경도되어 있는 듯하다. 그런데 바로 근처로버트 벤추리의 플랭클린코트는 충격적인 현대건축의 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 현대건축은 과거의 건축이 가졌던 장소들의 형식을 잃고 모든 지점이 일종의 원점이 되는 공간격식의 무정의한 네트워크로 일관하여 왔다.

따라서 내부공간은 독립적 의지가 없어진 것이다. 벤추리의 “건축에서의 복잡과 모순” 속에 현대건축의 반성과 과거의 전통이 갖는 공간식의 여러 논의를 읽은 것이 십수년 전이고 그를 아마 처음으로 잡지의 특집으로 다루었는데 오늘 처음 그의 건축을 실지로 대하였다. 여기에는 한 건축가의 건축 역사에 대한 언명만이 아니라 이러한 장소에 대한 삶의 깊이와 폭을 느끼게 하는 작가의 의지가 분명한 건축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플랭클린코트에서 그는 건축으로서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의 깊이와 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건축은 비자립적이므로 건축이 큰 전체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계 구조의 전체에 대한 이해없이 단순한 길드의 장으로서의 건축가는 오늘의 도시에서 실은 설 장소를 잃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건축이 당면한 수세기의 여러 패적과의 공존, 도시문제들과의 혼접, 새로

이 부각된 도시 공동체의 장소 등을 그는 선견적으로 이해하였고 위약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모든 기능은 지하에 있고 1층 입구홀만 노출되어 있다. 오래된 집들로 둘러싸인 빈터의 이야기에서 그는 시작하고 있다. 동서 양측 길 사이에 걸쳐 있는데 다 막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위의 길들, 집들 사이에 벤추리는 그들의 오래된 목은 사연들과 이들이 가진 마을의 개연성으로부터 모든 구석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기이 있었던 곳, 이미 있어온 것들과 새로이 시작되는 장소들 간의 대화가 있다. 나무로 만든 볼트와 추상 철골격자, 지하 전시장으로 가는 입구 홀, 건물과 앞의 철골 콜로네이드와 철근 현수선들이 실현적으로 조작된 바닥공간의 리듬을 타고 문득 한 허공간의 실상을 실현한다. 여기서 모든 결음은 충분히 어량되고 예정된 시각의 장을 구성하고 움직임 속에 건축적 체험의 윤곽을 보여 준다.

건축은 예술이나 공학이나 사회학적 체험이 아닌 도시에서의 인간 집합이 갖는 본래적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표현예술로서의 건축언어를 가지고 있다. 로버트벤추리의 이 건물은 이러한 건축적 표현의 한 전형적인 예인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표현은 지하랩프로 전시장으로 이어 가면서 또 다른 감흥의 전개가 연속된다.

사방 유리인 전실과 난데없는 레온사인 그리고 전시장의 유리통속의 거울들은 특수한 장소의 상황을 준다. 그것은 도시의 축도 같기도 한 복잡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플랭클린에 대한 각 계층의 견해를 말해주는 장난스런 전화대의 해학에 이르러서는 미소로운 감격까지 있다.

벤추리는 플랭클린을 잘 아는 사람인 것은 물론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

● 정치의 로맨티시즘을 보여준 멋진 정치가 케네디. 그러나 그의 기념도서관은 그의 사상을 건축언어로 표현 못하고 있어……

는 이 건축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적절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곳은 주제에 대한 감응력과 주제를 건축언어로 표현하는 기법과 그것들을 하나의 실체로 구현하는 계기들인 상상력들이 혼연일체로 최근에 우리가 본 가장 탁월한 건축의 한 예가 될 것이다.

리차드 메디칼센타를 보았다. 겨울 이어선지 다섯시인데 벌써 어둡다. 어두운 저녁 이 저명한 건물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많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60년대의 가장 영향력이 컸던 건물을 당도한 느낌은 그러나 가벼운 실망 속에 건축가의 건축가를 위한 건축가에 의한 건축에 대한 어느 구석을 보는 느낌이 있다.

건축은 그 건축이 서는 곳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필연적으로 구속되어 있다. 건축가는 자기가 설계하게 되는 건축의 명제에 대한 견해는 물론 그 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이 리차드 메디칼센타가 들어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의 이 거리는 백수십년 된 나무들과 건물들과 사람들의 사연과 역사가 쌓여 있는 곳이다.

건축가는 자기의 시일연대에 깊이 구속되어 있으나 그 캠퍼스에 의해서 부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큰 윤곽 속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개진하는 것이다. 루이칸의 아름다운 시적인 여러 글들의 감격을 아직 기억하고 있으나 이 건물은 펜대학의 이 장소에 하나의 불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첫단계의 십자형에서 한 축이 더 이어진 두번째 단계에 이르기까지 명제에 대한 과도한 편견의 형이상학과 이 토지에 대한 문학적 견해가 반복의 극복이 아니라 반복에서의 탈피에 그친 감이 있다.

조적조의 맞붙은 그라비티 사이에 부유하는 떠 있는 공간군들과 이를 받치고 있는 마치 나무등걸 같은 성

벽들은 표현의 기교를 위한 이론의 산물이다. 구조형식을 위한 주제의 범주화, 건축형식에 얽매인 디테일 등이 건물이 가졌던 저간의 엄청난 평가에 미래 실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비교적 이 토지의 분위기의 역사성을 알고는 있었으나 그것의 새로운 탄생을 계기케 한 것은 아니고 새로운 건축형식을 제안하였으나 과도한 방법론의 강행이 시행착오를 빚은 한 건물이다.

물론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정경도 있고 그 전의 건축이 가졌던 방식으로부터의 해방도 있으나 유행적인 모든 사조들이 그러하였듯이 인간의 유산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그 연속선상에 어떤 이포크를 만드는 그런 정통적인 것은 아니고 반복의 탈출을 신기의 이론과 문화적 감수성으로 보인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있었다.

보스톤('83. 1. 20)

강변을 따라 캠프릿지가 보인다. 항구 특유의 어수선탐이 있다. 하바드스퀘어 옆 웨라톤 카멘도 호텔에 묵었다. 주위의 3,4층 낮은 건물들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하고 눈에 싸여 있다. 170개의 객실을 가진 정갈한 호텔이다. 도무지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하다. 후론트에 한명, 로비에 한명이외 직원이 보이지도 않는다. 식당도 작고 조촐하나 오래된 호텔다운 기품있는 실내장식이 오히려 품위를 주고 있다. 조그만 엘리베이터 한대만이지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문득 비행기 소리가 들린다. 우규승형의 안내로 해변 케네디메모리알라이브러리로 갔다. 잠지에서 여러번 보았던 건물이다. 두개의 사각형을 대각으로 서로 물리고 한 사각은 피체로, 한 사각은 속이 텅 비게한 이원구조다.

피체로 된 부분은 피체를 더욱 강

조하여 반원형으로 파인 반이 잘려진 삼각형으로 처리하였다. 바깥으로 물린 부분은 낮게 이어지면서 원형의 공간이 걸려있다. 피체로 처리된 부분은 모두 회고 오히려 빈 부분이 겹겹이 포지티브하게 표현되어 있다. 형비가 어색하고 내부공간의 크기에 비해 공간감이 느슨하다. 대각으로 만난 부분끼리의 사선과 저층 원통과 연결부분간의 비례가 애매하여 항상 별일없는 평론가들의 말과 달리 대수로운 느낌이 없다.

케네디는 정치의 로맨티시즘의 멋을 보여 준 새로운 시대의 기수였다. 이 기념도서관은 그러한 그의 어떠한 것을 건축언어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플랭클린코트에서 벤츄리가 보여준 플랭클린에 대한 이해와 성찰에 비해 케네디 기념도서관은 불필요한 과장과 건축가의 취향만 강조되었지만 시대의 열망을 대변 하였던 지금 생각하면 미소롭기까지 한 정치적 로맨티시즘의 시대를 상징한 그리고 그 종언이 비극적이어서 더욱 사람들의 기억에 한 과거를 성립시켰던 인간에 빠진 기념관으로서 미흡하다.

전시 방식 역시 세련되기는 하였으나 드라마틱한 연출이 부족하다. 인디펜던스 메몰리안홀 같이 진품, 장소, 사실 위주의 기념관은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일종의 상징형식으로 기념하여야 하는 경우 워싱턴의 국회 옆 국립자료관 같은 진적만인 엄청난 공간 속의 전시나 플랭클린코트의 본질적 해석에 의한 공간형식의 창조가 아닌 이와 같은 과장과 세련의 전시는 오히려 어색하여 보인다.

보스톤 청사-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요란한 현상설계였던 보스톤 시청사를 보았다. 아직까지는 많은 아류들을 거느리고 있는 한 시대의 한 페이지에 속하는 그런 집이다.

주위에 큰 건물들과 가로와 상가들 가운데의 광장 같은 장소에 주위

● 하바드 캠퍼스는 하나의 도시이며 사회다. 호
 텔이 있고 트롤리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를 넓게 비워두고 사방에서 쉽게 접근되도록 띄어져 있고 그러한 사방 어디서나 호름은 사방에서부터 이층의 메인콩코스라 지하층의 콩코스로 연속되고 이층의 메인콩코스는 갤러리를 가진 더 큰 공간으로 상승하여 지하층 콩코스의 상부로 이어진다.

사방 어디서나 큰 공간적 변주 속에 건물 전체로는 내부였던 것이 어느틈에 새로운 외부가 되는 옥내외 공간의 상호 관입과 변조가 드라마틱하게 실현되어 있다. 공간기법도 엄청난 단면의 노출과 두 겹인 격자보형식의 반복이 압도적 크기로 클로즈업되어 여기 저기의 상부 오픈 스페이스도 그 스케일이 거창하다. 도시의 한 가운데 자연스러운 인구의 흐름과 기능의 만남이 요구되는 가장 데모크라틱한 기능이 강제적인 표현으로 제안되어 있다. 호름의 다이어그램이 갖는 자연스러워야 할 건축형식은 오히려 강압적이고 위계적인 압도적 스케일과 스케일이 탄압적 조작으로 왜곡되어 있다.

꼬르뷔제쇼크가 만들어 놓은 보스턴적 모뉴먼트라고나 할까. 아직 20년도 되지 않아 이 거리에서 동떨어져 보인다. 앞의 라라바반즈가 설계한 고층 오피스 빌딩이 오히려 더 보스턴답다. 서측의 루돌프가 설계한 시빅센타는 재능있는 건축가의 자의식이 도시를 나쁘게 만드는 전형을 보는 듯하다.

대조적으로 시청사에서 바닷가로 향하는 거리의 퀸시마켓트는 도시에서의 건축이 어떠한지 하는지 건축의 어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연 도시와 건축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공간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집들이다. 낡은 세 건물을 복원 재활성한 마켓트 플레이스다. 여기 많은 낡은 사람들이 사만가까이 모인다고 한다. 사만이면 엄청난 장치를 해 놓은 디즈니랜드의 피크시 일일 관람객이

다. 사만 가까운 도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쉽게 저절로 이리로 모인다.

이곳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스스로 없이 이곳이 되어 먹고, 마시고, 사고, 놀 수 있는 장소이다. 안과 밖이 가운데와 중간공간들과 얽혀 자연스러운 행위의 연장선에서 이어진다. 우리는 무지막지하게 투자된 실내장식의 공간 속에서 선택된 소수로서의 쾌락을 즐기는 외에 도시의 어디에서도 이런 장소를 가져보지 못하였다. 황학시장, 남대문 시장은 도시적 활기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불결하고 무질서해서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롯데쇼핑센타나 명동에서 우리는 제한된 소수로서의 도피적 자존을 본다. 여기 이 퀸시마켓은 보스턴에서 사는 일의 여러 많은 맛과 멋이 있다. 포장마차 상점도 있고 지하 술창고가 있는가 하면 복도를 다니며 먹을 것을 고르는 맛의 거리가 있고 이층 로턴다 밑의 정장스러운 레스토랑도 있고 세 건물 사이의 길을 따라 시청사 쪽으로 앞으로 옆으로 거닐기도 하고 옛 건물에 빗대어 잇댄 유리통 속에서 들락날락하는 안팎의 사람들을 보며 점잖게 밥을 먹기도 한다.

건축가들은 기능이라는 이름 아래 행위를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지 그 행위들의 사연을 잘 모른다. 사람들은 기술자에 불과한 건축가들의 빈약한 상상력 속에서만 지내주지 않는다.

건축가는 그러나 모든 인간행위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행위의 개연성을 공간형식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이 행위의 개연성을 상상하고 연출하는 일이 건축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보스턴 시청사나 시빅센타는 그러한 행위의 개연성 대신 행위의 플롯만이 건축가의 표현적

상상력으로 강제된 건축이다.

건축가의 상상력이란 사람들이 사는 일의 내용과 도시의 필연적 사건들과 집단적 체험으로서의 기능이라는 형식의 껍질과 이어짐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떤 윤곽 속에서 어떠한 사건들을 갖는지를 생각해 내는 일이지 표현적 창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적 창의를 건축가에게 필요한 상상력의 마지막쯤에 등장하는 역할이다.

이 퀸시마켓에는 건축가의 상상력이나 창의보다 도시와 도시생활의 개연성의 윤곽이 주로 부각되어 있다. 세 건물의 개수와 중간구조의 도입 등은 표현적 창출이 아니라 상상된 행위의 연장선으로 기도된 것 같다. 시빅센타나 시청사의 제어된 도시적 행위 대신 여기는 본래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행위의 연장선인 이백년 전 피를 흘려 싸운 목적이었던 자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다. 우리는 정치적 자유에 집착하여 자유와 민주주의가 갖는 본래인 내용을 잊고 있다.

건축가가 도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할 때 참다운 의미의 작가가 되는 것이다.

하바드 캠퍼스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사회이다. 백수십년 동안 확대되고 변화하면서 도시와 대학이 하나의 현상으로 얽혀 있다. 대학 안에 호텔이 있고 트롤리 버스가 다니고, 지하철이 있다. 백수십년 동안 차츰 성장해 온 변화가 모든 장소에 자취를 남기고 있다. 하바드 야드로 불리우는 처음의 장소 이외는 모두 개인 집, 상가들 사이에 강의실, 연구실들이 있다. 시카고 대학에서도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이곳은 대학과 도시가 엉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과 도시가 하나의 실상으로 나타나 있어 그 두가지가 비자립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문법과 범주로만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던 관악캠퍼스 당시

● 현대건축의 비극은 어느 시대보다 과다한 기회와 물량과 주제가 주어지는 데에 있다.

의 가짓 수 모르던 어휘 해석식의 토론을 상기하고 웃는다.

건축대학 제도실을 보았다. 다섯 개 층 피라미트의 제도단을 가로질러 세 곳 계단이 이어지고 뒷측으로 강의실들과 연구실이 붙어 있다. 전면과 기단부분을 콘크리트로 처리하고 이 메이저 스페이스는 철골 파이프 트라스로 구성하였다. 바닥과 벽 천정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닥이 오개 층을 단층지어 올라가고 전면 캔틸레버된 구조체와 한층면의 콘크리트 입방체로 해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제도실의 풍경이 장관이다. 김 원형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는데 나는 와서 가르치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웃었다. 마침 어떤 친구는 개를 제도판실 밑에 두고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자전거를 끌어들여 놓고 한 친구는 자기가 사먹은 과자 껌질로 풀라쥬를 만들어 걸어 놓았다.

마침 현관 홀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에콜드보자르의 반복이 시도되고 있었다. 한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이고전 왜곡인 유타칼아트(1965)의 모습을 하더니 이제는 고전연습을 대학에서 가르친다. 인간의 견해가 갖는 시한성은 결국 사고와 어휘가 갖는 상황 한정적 기능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새로운 생각들의 단계와 그 생각들의 구체화 단계 그리고 매너리즘과 과거의 어느 시대로의 회귀가 공존하는 단계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라고 쉽게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사고의 시한성에 연유할 것이다. 교육이 좋은 건축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건축교육은 건축가로서의 가능성과 생각할 수 있는 도구를 줄 수 있을뿐

그들에게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큰 교육의 하나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들이 만나게 되는 환경들을 볼 수 있는 어휘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듯이 건축이라는 대상을 구성하는 어휘를 배우는 것이다. 그 어휘들을 통해 그들은 살고 있는 환경이 뜻하는 것, 우리의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일, 건축이 실지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방식 등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교육은 당연히 가능성의 영역과 시야의 영역 두 가지를 함께 포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교육의 방식에 보다 가르치는 자의 전인격에 더 많이 상관이 있는 것이다.

하바드에서 새삼스럽게 에콜드보자르를 가르치는 이유를 알 듯도 하지만 하바드 교육이 성공 보다는 실패가 많았던 것은 60, 70년대의 미국현대건축의 정체와 최근의 친편 일률적인 사조의 영향에서 아는 일인데 그것이 교육방식에 보다는 직업적 교수들에게 더 문제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꼬르뷔제의 카펜터센타를 보면서 더 하다. 기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꼬르뷔제의 작품들이었는데 우연히 그의 미국에서의 유일한 작품인 카펜터센타를 보았다. 언뜻 보면서 역시 통째로 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각과 곡선의 벽들을 타고 길어진 램프가 집을 지나가고 하늘로 기둥이 비상한다. 안과 밖이 공중을 떠가는 램프를 따라 엇갈리면서 두 개의 내부공간으로 분화한다. 이곳은 사방에 오래된 적색벽돌의 3, 4층 건물들로 둘러싸인 고색창연한 캠퍼스의 어느 구석이다.

여기 꼬르뷔제는 왜 현대건축이어야 하나를 보여 준다. 「새로운 건축술」에서 그는 “이미 지금은 과거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을 말하여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어휘로 만들어진 건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건축이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건축의 문법을 말하였다. 카펜터센타는 현대건축의 로만티시즘을 과거의 유적들 사이에서 언명하고 있다. 문이 아닌 길이 집의 상층부를 떠서 지나고 피막같은 벽면을 따라 두 피체가 짙은 음영으로 대위하고 가늘고 늘씬한 기둥은 입체의 그라비티를 해학한다. 미끄러져 가는 공간, 아무 그레머를 갖지 않은 도처의 장소들은 우리의 입장에 따라 주위의 환경에 따라 새로운 장소들로 태어난다.

계절의 성쇠가 스치고 밤과 낮이 바뀌면서 이 장소는 우리에게 건축 체험의 시적 정경을 보여 준다. 불가사의한 사고의 미로를 거쳐 그는 우리에게 과거의 유적이 갖는 인간 체험의 높에 한 과문을 기도한 것이다.

물론 과거의 건축은 위대하였다. 현대건축은 위대한 인간의 궤적 위에 새로운 한 더함을 기도한 것이다. 현대건축의 비극은 어느 시대보다 과다한 기회와 물량과 주제가 주어진 데에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은 대다수 인간들에게 최소한의 거주성의 확보와 활동영역의 새로운 확대를 성취하였다. 지금 과다했던 경우는 축소되어 있다. 건축가들이 현대건축의 시작이었던 사명에서 벗어나 고전주의의 미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나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게 되어 미소롭다.

이로샤리넨의 MIT 채플과 강당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뉴욕으로 와서 케네디 공항의 TWA 에어포트를 또 보았다. MIT 채플을 당도하는 느낌은 꼬르뷔제를 보았을 때 갖게 되었던 압박감과 감동 대신 편안한 감탄과 약간의 비판이 있는 건축저널리즘에 대한 야유 같은 것이었다.

● 마드리드의 상로렌즈 수도원. 모든 인간의 지식과 예술들이 모여있고, 올리브나무 숲엔 신비로움이 ……

물론 흥미있고 뛰어나고 새롭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래적인 심층의 바닥을 흔드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는 사상들로 부터인 창의적 상상력이다. 채플과 강당은 발명적인 느낌이 크고 TWA는 단순구조의 현학에 더 치중된 듯하다. TWA의 모든 화려한 채사는 가우디의 작은 상점에 미치지 못하고 강당과 채플의 기하학은 내부에 와서 혼돈되어 있다.

TWA에서 그는 에어포트의 드라마를 기도하였으나 형식을 위한 대칭적 구성과 동선의 강제된 해방이 오히려 구경거리로서인 장소를 만든 셈이 되었다. 한 작가의 과도한 집념이 만든 조형의지의 실현 속에 정작 그는 에어포트가 갖는 상황 언어의 실지를 손해보고 보는 자와 사는 자의 피리를 빚은 셈이 되고 말았다.

그는 건축의 본질에 속하는 장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엘리엘 샬리엔의 헬싱키 터미널에서 느끼던 도시의 중착 혹은 각 곳으로의 출발이 갖는 도시적 해후의 로맨티시즘 대신 여기는 형이상학이 배제된 조형의지의 유희를 보는 감이 있다. 아이엠페이의 크리스찬 사이언스센터 역시 디벨로퍼와 한편이 된 건축가로서의 계산된 연출과 대중 조작적 건축언어의 과장된 표현 이외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인다.

마드리드('83. 1. 20)

다시 마드리드에 왔다. 일년 반만에 다시 이 도시로 오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하였다. 새벽 공항에 도착하였다. 보스톤에서 뉴욕을 거쳐 여기까지 장장 10시간 반을 온 것이다.

기내에서 잠시 눈을 붙였으나 잘 잤어야 세 시간일 것이다. 토요일이어서 오전만 뮤지엄, 왕궁들이 문을 연다해서 짐만 호텔에 두고 세수도 못하고 나선다. 이렇게 서둘 일인지.

이렇게 서두른다고 무엇이 되는지.

어느 시간도 어느 시간의 준비가 아니다. 모든 시간은 다 유일한 시간이다. 특수한 극한 상황이 아닌 경우 피곤으로부터의 휴식은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즐리고 지친 발등이 다 부르튼 지난밤 잠도 못잔 아침이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일까.

케인즈의 자유정도는 즐길 수 있는 자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자신들을 혹사하는 것이다. 이런 자포자기의 우리의 시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다 가난하고 여유가 없는 탓일 것이다. 엘에스코리알의 성자의 계곡을 다시 찾는다. 멀리서 부터 보이는 십자의 탑은 기단이 되는 산세에 밀리어 수직성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샤프트르 대성당 같은 직진의 비스타가 아닌 와류의 흐름 속에 느끼는 직립한 십자의 탑은 최초의 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파넬 석재들로 굴을 만들었다는 앞 신전은 차라리 피라미드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제단을 준비하고 그 속에서의 돌연한 프로세션이 이어졌으면 본래의 생각을 잘 구현한 방식이 되었을 것이다.

근 30여년에 걸친 인력의 불가해한 힘이 만들어 놓은 장관들이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왜곡된 파시즘의 잔해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무의미한 역사에 희생된 숭고한 인간들의 시체만이 쌓여 있다. 국가 지상, 민족지상의 구호로 위장된 특수 계층의 이익과 그 이익계층을 받치고 있는 보수라는 이름의 위장된 성채를 위해 이 거대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다.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연속선상에서 그 가치의 근거를 갖는 것이다. 물론 프랑코 통치하의 스페인은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이런 기념비는 오히려 진실일 수도 있었던

그들의 애국을 웃게 할 것이다. 아무 말 없는 전사들의 무덤은 더 존귀한 형식이 필요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한 갈등이 내란의 형식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다. 진보에 공감하였던 당시의 지식인들이 과연 옳았을까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승리한 자들의 40년에 걸친 지배가 정당하였는지는 당사자인 스페인 사람들이 알 일이겠으나 이 엘에스코리알의 지하 성소는 스페인 내란의 희생자들을 위한 사자의 계곡으로서는 엄청난 노력에 비해 습작같은 사이버비대중적 열광만이 보여진다.

오는 길의 “상로렌즈” 수도원은 대조적이다. 올리브나무의 숲은 신비스럽다. 구릉이 이어지는 들판의 올리브 숲은 겉가지의 부유하는 색깔과 구루터기의 회갈색과 나무들의 짙은 녹색들이 밀리며 엉키어 지평선으로 떠서 움직여 가는 듯하다.

이 수도원 주위는 무슨 다른 세계인듯한 청정감이 감돈다. 신과 자신들의 영원을 위한 모든 인간의 지식과 예술들이 여기 모여 있다. 이 지식과 예술들은 비록 강제였으나 자기들의 길을 잃지 않고 있다. 그 일은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하는 일이고 지식인들이나 작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에 어떤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

식민시대를 살아 온 지식인들의 바로 그 식민지 근성이 그 원인일 것이다. 그들은 정작 그들이 참여 했어야 했던 민족적 정통성을 위해 그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한갓 도피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기 회복을 위해 저항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담을 넘는 지렁이와 같아 보인다. 왜 정부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견해들로 자기 현혹을 반복하는지.

● 유대인 학살기념관. 그 엄청난 학살에 비해
이런 기념관이 갖는 의미란 뭔가?

엘에스코리아의 두 성채가 말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고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한다. 톨레도를 다시 온다. 지배계층의 민족 이동이 근10세기 동안 네번을 치른 옛 도시가 지금 얼마간은 비어 있는 채 관광지가 되어 있다.

지하의 채광형식이 아름답다. 지하 성채의 우물실의 황홀한 실내구성에 감탄한다. 필요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만은 아니다. 건축의 모든 부분은 전체를 감당하는 깊이를 갖는 것이다. 예술가는 그가 비록 조적공이나 미장이어도 얼마든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아름다운 도시다.

빠리('83. 1. 25)

밤 늦게 다시 노트담을 찾았다. 강 안 밑 길에 앉았다. 고딕은 조적조의 중력을 승화하였다. 그들은 동적 균제라는 건축이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던 형비의 미학을 시도하였다.

하우저의 객관스러운 설명이나 러스킨의 감동적 수사와 상관없이 저기 노트담은 서 있다. 세느강이 빠른 속도로 흐르고 강 안 호안의 수목은 한 겨울에 푸르고 북측 한편으로 뿌옇게 하늘이 트이고 멀리 고색의 건물이 이어가는 사이를 다리들이 겹쳐서 선다.

레지스탕스 기념관은 군사박물관의 한 부분 건물을 쓰고 있었다. 셋으로 구분되어 있다. 드골 휘하의 망명정부관, 국내의 레지스탕스관, 수용소 군도관 등이다. 망명정부관은 드골이라는 의인화 된 상징형식이 있어 설화적이다. 역시 대중형식은 의인화될 필요가 있다.

대중은 사건 형식 보다는 인간으로 표현된 상징형식의 암시에 약하다. 익명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인간형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외연으로 받아들여지는 암시 작용을 한다. 망명정부나 레지스탕스에 대해서 많이 들

어서 알고 있었으나 여기 와서 그 자료들을 다시 보고 감동하였다. 알고 있다는 사실은 기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순히 진열되는 것만으로도 그 과거의 사실들은 현재와 미래의 현실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들이 있고 있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과거의 현실성, 상상력의 실재를 위해 도시의 일상인 듯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뽕뽕두센타 지층 특별 전시실에서 백남준의 비데오 전시회가 있었다. 백수십 티브이가 한층 밑에 위를 보고 누워 계략된 영상을 번쩍인다.

엘렉트로닉스가 주는 기묘한 시각 체험의 한 영역을 본다. 컴비네이션이 더 다양하고 더 복합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신기하고 재미 있기는 한 데 무언가 울리는 것은 없다. 낮게 말하면 귀엽고 재미있다는 느낌이다.

5층의 현대미술 전시장을 둘러 보았다. 특별전시가 아니고 자기들의 수장품을 전시하였다. 너무 대단하여 머리가 아프다. 칸딘스키가 그렇게 좋을 수 없었고 드랭도 대단하였다. 립시츠의 유명한 피규어도 보았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삼부 연작도 보았다. 마티스의 초기, 중기, 후기의 중요한 작품이 고루 다 있고 샤갈의 것은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

아르똥의 이즈러진 큰 달걀 앞에 한 그룹이 왔다. 미술대학 공부시간이다. 열심히 설명하고 듣고 질문한다. 페브스너의 좋은 것은 다 모은듯하고 샘프란시스와 드뷔페는 하나씩이었으나 대단한 작품이고 자코메티는 후기의 추상작품의 컬렉션이 압도적이다. 이런 것을 매일 볼 수 있는 도시에 산다는 일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일까.

연간 그림 살 예산이 천만원도 안 되고 컬렉션은 국내작가의 자기 기증

품 외에 별 것이 없고 현재 공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서울 생각을 하며 잠시 분개하였다. 여러번 다시와 보고 이제는 전시물에 더 신경이 쓰는 경우가 되면서 다시 보니 뽕뽕두센타가 좋은 건축이기는 하다.

이들은 좋은 장소를 만들었다. 상징형식 없이 스페이스를 테크놀로지의 시각언어를 통해서 제조한 듯하다. 새로운 건축의 계서적 예인 것처럼 한 동안 떠들었으나 그것은 과장이었고 전통적 의식에 의한 혁신적 방식의 공간조작이었다는 느낌이 있다. 온건 보수라 할 과거와의 맥락이 강인하다.

유대인학살 기념관-노틀담 동측 씨테섬 끝 고구마 같은 부분에 섬 끝의 토지적 형상이 그대로 상징형식을 실현하고 있다. 여러번 이 앞을 다니면서도 이곳이 있는 줄 몰랐다. 파리에서 살룩된 20만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다. 건축형식의 함축적 표상이 주는 감동은 컸으나 그러나 도대체 그 엄청난 학살에 비해 이런 기념비가 무슨 소용인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들은 이렇게 이해해야하나. 기념비가 있어서 처참함들이 일상의 기념으로만 남는지. 길에서 한층 내려선 스무평 남짓한 작은 마당 동측 창살 앞으로 세느강이 소리하며 흐른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 무참히 죽어간 그들의 보복을 우리는 알고자 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다.

선과 악의 피안을 기념비라는 이름의 이 기하학은 어찌자는 것일까.

밤 11쯤 상제르망의 카페드마고로 갔다. 이차대전 직후 그들이 모이던 곳이다. 길을 향한 온실 그 속에 사회의 온실 식물인 지식인들이 모이던 곳이다. 기생충 같은 관광객의 일원이 되어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인생을 말할 수 없다는 켈바도스를 마신다. (*)